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분야 지원심의평

창작뮤지컬 분야

- 일정 및 장소 : (1차)7.13(목), (2차)7.20(목)/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나영, 김용제, 지혜원, 최성신, 허수현

한 편의 뮤지컬이 창작되고 개발되어 안정적인 작품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와 자생력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지원사업은 양질의 창작뮤지컬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국내 뮤지컬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수한 창작공연이 다시 공연되어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은 기존 작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의지와 재공연을 통한 수정·보완 계획이 분명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및 인터뷰 심의의 공정하고 엄격한 과정을 통해 지원 작품을 선별하며,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창작 및 기획의도, 시놉시스 및 대본의 우수성, 연출 및 무대의 완성도 등에 기반 하는 작품의 수월성과 예산 및 일정계획, 참여인력 구성,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제작의 실현 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상기의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2017년 창작뮤지컬분야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2차 공모에는 총 24작품이 출품하였으며 1차·2차 심의를 거쳐 일반 대상 2작품과 어린이·청소년 대상 2작품 등 총 4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무대 위 영상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소재를 풀어낸 <빈센트 반 고흐>는 소극장 창작뮤지컬의 미학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추후 영상 부문의 기술적 보완과 동시에 작품의 서사적 약점을 보강한다면 보다 탄탄한 레퍼토리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16년도 창작산실 창작뮤지컬육성 시범공연 및 우수작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초연된 바 있는 <레드북>은 대본 및 음악의 완성도가 뛰어나며, 향후 중·대극장 레퍼토리 공연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하지만 기획과 홍보·마케팅 등에 있어서는 추후 인력보강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공연을 통한 도약이 기대되는 뮤지컬인 만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과 체계적인 제작여건을 갖추어나감으로써 안정적인 레퍼토리 공연으로 성장해나갈 바란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작품 중 <공룡이 살아있다>는 오브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무대를 연출한 점이 돋보였으며, 향후 어린이·가족 뮤지컬 레퍼토리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다. 다만, 시각적 요소에 치중하지 않고 대본과 음악 등 기초 텍스트의 유기성과 안정성을 증대함으로써 작품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이 버킷 리스트>는 작품의 보장 방향과 계획이 구체적이며, 재공연을 통해 청소년 관객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뮤지컬이다. 텍스트의 보완 작업과 동시에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홍보·마케팅 방안을 시도함으로써 안정적인 관객층을 확보하며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한다.

2017년 창작뮤지컬분야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2차 공모에는 전체적으로 일반 대상 작품과 어린이·청소년 대상 작품이 고르게 출품된 점이 눈에 띈다. 1차·2차 심의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위 4작품은 주요 관객층이 한 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극장 규모의 작품과 소극장 작품이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점에서 창작뮤지컬의 저변이 안정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충분한 개발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장기 공연의 기반이 채 다져지지 않은 국내 뮤지컬 시장의 현황을 감안하였을 때, 창작뮤지컬은 지속적인 재공연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객을 확장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시장 내 경쟁력을 획득한 작품은 비로소 레퍼토리 공연으로서의 자생력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선정된 4작품이 재공연의 효과를 입증하며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양질의 작품들에게 재공연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